

ISEM - Sapro(電磁시스템의 시뮬레이션과 설계응용 국제회의) 참가보고

권 병 일

1. 머리말

필자는 1월 26일 부터 30일 까지 일본의 삿포로에서 개최된 “電磁시스템의 시뮬레이션과 설계응용 國際會議 (ISEM - Sapro)”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에서 필자 외에도 한양대학교 임달호 교수, 서울대학교 한송엽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ISEM - Sapro의 다음은 ISEM - Seoul이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참가 보고 및 ISEM - Seoul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2. ISEM에 대하여

ISEM은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Applied Electromagnetic Systems의 略字이며, 電磁力應用을 主題로 하는 국제회의로서, 1988년 일본의 동경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그 후 ISEM의 略字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타이틀을 정하여 매년 일본의 대도시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ISEM을 실제로 主導하는 日本内の 모임이 主體가 되어 日本 AEM學會 (The Japan Society of Applied Electromagnetics)를 2년 전에 창설하였으며, 그 후에도 日本 AEM學會가 ISEM을 이끌어 오고 있다.

제5회에 해당하는 ISEM - Sapro의 타이틀은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mulation and Design of Applied Electromagnetic Systems로서, 212편의 초대논문 및 일반논문이 구두발표 및 포스트 발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으며, 세계 各國에서 약 350

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삿포로는 197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로서 “눈축제”가 유명하지만, 발표기간 동안은 공교롭게도 날씨가 따뜻하여서 삿포로 다운 눈풍경은 맛볼 기회가 없었다.

3. ISEM-Seoul 개최 계획

1988년 동경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일본 국내에서 매년 개최되던 ISEM을 일본 이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ISEM - Seoul은 1994년 6월 22일 24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위치하는 文化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전기학회의 전자기응용에 관계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유치하게 되었으며, 고문 한양대학교 임달호 교수, 회장 서울대학교 한송엽 교수, 간사 단국대학교 이기식 교수 및 필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ISEM - Seoul의 타이틀은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mulation and Design of Applied Electromagnetic Systems이며, 최적설계, 逆問題 등 電磁力를 응용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학회지에 홍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ISEM - Seoul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投稿와 協력을 부탁드리는 바이다.